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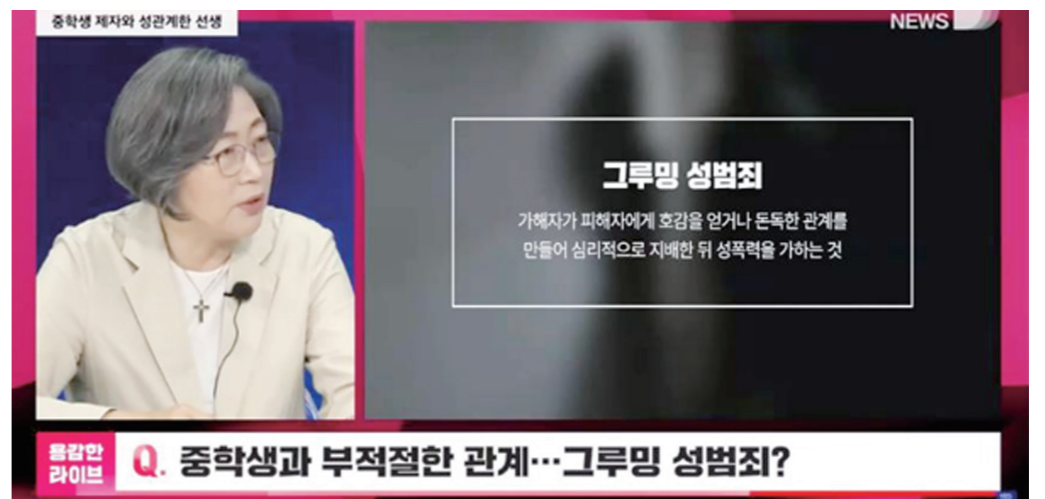
여교사·남학생 성관계 사건...이수정 “성범죄 처벌 쉽지 않아”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 판단 필요” “판례상 아동복지법 잘 적용하지 않아”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여럿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수정 교수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공부방 여선생에 대해 “물리적인 나이 차만으로 엄벌이 가능할지 잘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난 판례가 있

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끝까지 연인이란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공부방 여선생이) 구속될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로 취급되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강요된 성관계여야 한다”며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체적 조건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해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납용한 일종의 그루밍으로 보인다”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에 대해 이 교수는 “제자가 고등학생이라 만 18세 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고등학생 제자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교수는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이슬기자



피켓을 수요시위 참석자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광주 파출소서 조사받다 도주한 30대 수배범 7시간 만에 검거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30대 남성 수배범이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조사 도중 달아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7분께 광산구 하남동 한 원룸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된 뒤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 오전 4시께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바깥으로 나선 뒤 달아났다. 도주 당시 A씨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으며, 경찰관 1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행택기자

달아난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파출소에서 약 2k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파출소 내 피의자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행택기자

‘줄리 의혹 제기’ 고발 사건 첫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 당한 안해욱 전 태권도초등연맹회장이 27일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 데 상당히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씨가 ‘줄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 (김 여사를) 여러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런 사실을 전부 잊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거꾸로 거짓말한다는 누명으로 고소, 고발 당하게 된 것”이라며 이날 경찰에 61쪽의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대통령 장모의 옛 동업자 정대택씨, 유튜브 서울소리의 백은종 대표 등도 참석했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안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현장을 찾았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안 전 회장의 조사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 의사를 물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이 다를 때가 있다. 이럴 땐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둘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조사도 안 해보고 조사가 시

작되지도 않았는데 대뜸 거짓말 조사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묻는 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9일 안 전 회장과 더불어 TBS ‘김여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여준, 익명 제보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당시 안 전 회장은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줄리를 본 적이 있으며 호텔 전사회에도 함께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6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 여사가 1997년 당시 ‘줄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줄리를 안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거다. 저는 줄리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라 내가 줄리였다면 다 빠져 나온다.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제대로 취재해 달라”며 “다 증명할 것”이라며 ‘줄리 의혹’을 부인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